

지난 22일 열린 광주시립교향악단 '마스터클래스'에서 홍석원 예술감독이 참가자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다.



2022 Master Class

“지휘자는 소통하는 직업, 단원·관객과 호흡해야”

‘상반기 전통문화예술강좌’ 3월 8일까지 수강생 모집

광주시향 '마스터클래스' 현장스케치
홍석원 지휘자 노하우 전수
전공자 참여, 일반인도 참관
모차르트 교향곡 직접 지휘 경험
4월 피아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5월 비올리스트 이승원 강연도

“지휘자는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저 팔만 흔드는 동작은 지휘라고 할 수 없어요. 좋은 음악을 위해서는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단원들과 소통을 잘 해야 합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예술감독 홍석원·이하 광주시향)의 ‘마스터클래스’가 열린 22일 오전 10시 광주시향 연습실. 홍석원(40) 예술감독이 예비 지휘자들에게 전한 조언이다.
이날 연습실에서는 베토벤의 곡이 수도 없이 연주됐고, 홍 예술감독의 조언 또한 이어졌다. 연습실은 긴장감과 함께 열정으로 가득했고, 참가자들은 홍 지휘자의 강연을 동영상에 담으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였다.

지난해 광주시향이 처음 시작한 ‘마스터클래스’는 차세대 예술가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광주시향과 협업 무대를 선보이는 연주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레슨을 해 주는 시간이다.
지금까지 피아노, 바이올린, 클라리넷, 성악 등의 마스터클래스가 열렸지만 지휘자의 노하우를 배우며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마스터클래스에는 지난 1월 심사를 거쳐 선정된 8명의 참가자와 10명의 참관자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이 지휘를 전공

한 학생들이었고, 일반인도 포함됐다.
홍 예술감독은 “불과 10년 전, 나 또한 거장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지휘 꿈나무였는데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보니 더욱 긴장된다”며 “좋은 지휘자를 육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리가 안나는 피아노로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해봤자 도움이 안돼요. 특히 지휘는 혼자만 연습한다고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마스터클래스 20분이 짧지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광주시향이 연주하는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을 10~15분씩 지휘하면 홍 예술감독이 조언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처음 오케스트라 앞에 선 탓인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홍 예술감독의 지적에는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홍 예술감독은 기본적인 몸동작에서부터 지휘자의 역할과 자세에 이르기까지 각 참가자에게 부족해 보이는 부분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몸동작이 눈에 띄게 많은 참가자에게는 직접 이런 저런 자세를 취해 보여며 조언했고, 목소리가 작은 참가자에게는 용기를 주며 단원들과 같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휘자는 단원들과 소통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중요하죠. 음악의 방향을 분명하고 크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해요. 또 ‘좋은 음악’이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케스트라와 공통의 음악을 만들어 관객에게 전할 수 있어요.”
이날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한 장예은(21) 학생

은 “서울대 지휘과에 입학예정이다. 입시가 끝나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도전했다”며 “항상 혼자 또는 선생님과 둘이 연습하다가 처음 오케스트라 앞에 서니 너무 떨렸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첫 지휘를 광주시향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오스트리아에서 지휘를 공부하고 있다는 이현민(33)씨도 “평소 존경했던 홍석원 지휘자에게 가르침을 받게 돼 영광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에서 살았고 전남대에서 음악을 공부했어요. 당연히 광주시향에도 관심이 많았죠.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고향에 머물던 중 SNS를 통해 마스터클래스가 열린다는 소식을 알게됐고 바로 신청했어요. 큰 도움이 됐습니다.”

홍 예술감독은 시종일관 음악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다. 음악을 사랑하고 좋은 음악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테크닉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관객이다”며 “항상 관객을 생각하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마스터클래스 강연에는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4월27일)와 비올리스트 이승원(5월30일)이 강사로 나선다.
러시아 출신 피아니스트로 현재 성신여대 교수로 재직중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는 4월28일 열리는 ‘Magic’ 무대에 오르며, 노부스 코르넬 전 멤버였던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교수 겸 지휘자 이승원은 6월3일 ‘Brahms’s’ 공연을 준비중이다.
참가자는 4~5월 중 모집하며 일반인도 누구나 참관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062-524-5086. /글·사진·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2022 상반기 전통문화예술강좌’ 수강생을 3월 8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판소리 4강좌’(심청가, 춘향가, 흥보가, 수궁가)를 비롯해 모두 13개 강좌다.
강사진은 ‘판소리’ 중급반의 방성춘(광주시지정 무형문화재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이순자(‘남도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김선이(‘남도판소리 흥보가 보유자’, 조급관 박미정(‘판소리춘향가 전승교육사), ‘판소리고법’ 양신승(‘판소리고법 전승교육사), ‘청소년 가야금병창’ 문명자(‘가야금병창 보유자), ‘성인반 가야금병창’ 이예애(‘가야금병창 보유자), 황승욱(‘가야금병창 보유자), ‘전통음식’ 최영자(‘남도의례음식장 보유자), 이예선(‘남도의례음식장 보유자), ‘행화’ 송광무(‘행화장 보유자), ‘장구 만들기’ 이복수(‘악기장 보유자), ‘민화’ 이성임(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이다.
수강 신청은 전통문화관 홈페이지와 전화로 접수 가능하다. 각 강좌 인원은 최대 8명 수강료는 10만원. 재료비는 별도. 전통문화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문의 062-670-850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예위, 공모사업 지원신청 3월14일까지 메타버스 등 3개

문화예술위원회는 3개 공모사업의 지원신청을 오는 3월 14일(오후 6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받는다.
먼저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창작에서 향유·확산·소비로 이어지는 온라인 예술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콘텐츠 창작’(진입, 성장) 유형, ‘확산 서비스’(매개, 수익) 유형을 통해 창작자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시장맞춤형 확산 서비스도 지원한다.
미래예술 환경에 대비해 ‘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된다. 상호작용과 경험 가치 등 메타버스의 속성과 기술을 예술에 담은 창작 실험활동 등을 지원한다.
또한 ‘예술과 기술융합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는 과학기술과 예술적 창의성을 추구하는 기술융합 창작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창작지원은 ‘기획 단계’(아이디어 기획·구현 지원), ‘창·제작 단계’(기술융합 창작제 지원), ‘확산 단계’(우수작품 후속지원) 유형이 있다. 올해는 예술현장의 창작자 기반 조성을 목표로 ‘자유기획형 활동지원’을 신규 추진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광주여성의전화, 수강생 모집

(사)광주여성의전화가 제13차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비대면(ZOOM)으로 오는 5월9일부터 30일(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5시)까지 진행되며 교육 내용은 여성주의 상담, 여성폭력상담의 특성 및 사례연구, 상담원의 자세와 역할 등이다.
선착순으로 총 40명을 모집하며 접수는 교육 시작 전까지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여성의전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363-0485.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우리의 관계, 일, 감정 ‘봉인된 우연’

서양화가 김민지 개인전 28일까지 서구 민아트갤러리

“자유롭게 뿌려놓은 색의 향연.”
서양화가 김민지 작가 개인전이 오는 28일까지 광주시 서구 민아트갤러리(상무민주로 6번길 16)에서 열린다. ‘봉인된 우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자유분방한 작업이 돋보이는 비구상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김 작가의 작업은 붓과 뿌리고 흘리는 작업의 반복이다. 그 결과 우연이 만들어낸 선과 면의 만남은 의도하지 않은 모양새로 화폭을 채우고 화면은 독특한 리듬감으로 채워진다.
내면의 무의식과 심리 상태를 작품으로 발현하는 김 작가는 선과 색을 중시하고, 여러 색들이 쌓이고 엉키고 서로 교차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관계 등을 표현한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채롭고 화려한 색감은 생명력을 부여한다. 색은 작가가 작업하며 가장 ‘방점’을 두는 것이기도 하다. 감정과 생명력을 지닌 색에는 온도가 있고 무게가 있으며 또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처음 채색한 색들이 쌓여 새로운 색을 만들어 내고 그 색들이 한데 어우러져 캔버스 곳곳에 쌓이며 서로 얽히고 설켜 다양한 구도를 구현한다.
김 작가는 “추상작품은 어려운 예술로 비춰지지만 추상화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저 작품을 보고 감상자가 느끼는 그 자체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말한다. 조선훈 서양화과를 졸업한 김 작가는 조선훈 회화상(2012)을 수상했으며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프렌즈 사파리 음악회에 초대합니다”

어린이 클래식 공연 3월3~4일 광주문예회관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공연을 준비했다.
기획공연 포커스(Focus)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사진)가 오는 3월 3일과 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EBS에서 방영한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를 모티브로 한 시간으로 도레미 탐험대원들이 탐험대장을 따라 프렌즈 사파리에서 펼쳐지는 음악회에 참석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다. 다양한 교구를 통해 재미있는 놀이에 직접 참여하고 음악을 체험하며 클래식 음악에 대한 기초 이론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다.
3월 3일에는 현악사중주와 함께 떠나는 ‘홍학의 무도회’를 주제로 뮤지컬 배우 권수현이 도레미 탐험대장을 맡아 클래식 사파리 여행을 이끈다. 공연

에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훈·한철희, 비올리스트 김광라, 첼리스트 심수연으로 구성된 디브릿지앙상블 현악사중주와 함께하며 헨델의 ‘수상음악’ 중 ‘알라 혼파이프’, 보케리니의 ‘미뉴엣’ 요한 스트라우스의 ‘피치카토 폴카’ 등을 들려준다.
3월 4일에는 금관오중주와 함께 떠나는 ‘악어의 양치시간’을 주제로 멋진 이빨을 자랑하는 악어 투스와 음자리표를 따라 칫솔을 위로 아래로 움직여 보는 음악 여행을 떠난다. 트럼펫 이상호·임병렬, 호른 신운철, 트롬본 박병재, 튜바 한동혁 등이 무대에 오르며 동요 ‘악어떼’에서부터 페렐벨의 ‘개는’, 헨델의 ‘시바 여왕의 도작’,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전석 2만원. 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 예매. 문의 062-613-8233.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